

'무자본 강통전세 보증금 사기' 막는다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꾸리고 첫 회의 지역 내 유사피해 예방, 수사 공조 계획

이른바 '무자본 강통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광주시와 김·경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30일 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와 광주지검·광주경찰청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꾸려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매입한 빌라에 임차인을 들여 전세 보증금만 가로채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유사 사기 피해는 없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지역에선 아직 이렇다 할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보증금 사기 범행이 포착되면 조사·수사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공동 대응기로 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광주지검과 함께 김·경 수사 협의회를 구성해 기존 전세 보증금 사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특정경제범죄중재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정보(51)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또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가짜매수인(바지 사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 방식으로 뒤 전세 보증금 480여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등은 정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 직전인 신축 빌라의 매매가를 한 번 더 높은 '업(UP) 감정 계약서'를 꾸민 뒤 명의를 허위 이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공모한 컨설팅 업체 일당은 올린 매매가로 '바지 사장' 2명과 허위 매매를 꾸민 뒤 다시 한 번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받은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정씨의 전세 보증금 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신병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93건·646여 원을 때먹은 박모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요령

-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하세요**
계약 전 신분,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등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수령인, 임대보증금 반환인, 임대보증금 수령일, 임대보증금 반환일, 임대보증금 반환처 등을 명시하세요.
- 임차인 법적지위**
임대보증금 반환인(임대인)과 임대보증금 수령인(임대인)은 동일인이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인(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수령인(임대인)의 직속가족이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인(임대인)과 임대보증금 수령인(임대인)이 다를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의 보증금자는 무엇인가요?**
임대보증금 지급,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보증금 수령 등 임대보증금 관련 서류에는 임대보증금 지급인, 임대보증금 반환인, 임대보증금 수령인, 임대보증금 반환처 등을 명시하세요.
- 임차주택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인(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수령인(임대인)의 직속가족이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인(임대인)과 임대보증금 수령인(임대인)이 다를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인(임대인) 확인**
임대보증금 반환인(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수령인(임대인)의 직속가족이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인(임대인)과 임대보증금 수령인(임대인)이 다를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규모다. 서선욱 기자



여수소방서, 전기화재 저감'트레킹 클리너' 운영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겨울철 전기화재 저감을 위해 '트레킹 클리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광양소방서,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2022년 불철 특수시책에 이어 겨울철 자율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산림인접마을에 보일러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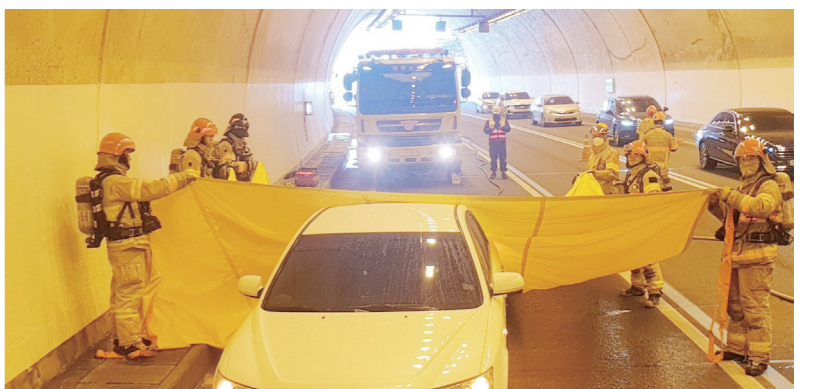
광양=김현근 기자



강진소방서, 지역아동센터 소방안전교육 실시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1월 한달간 강진군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를 방문하여 겨울방학을 맞아 나홀로 아동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 금당산터널 합동 소방훈련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최근 금당산터널에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 멘토 위촉식 개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3년도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멘토'로 선정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오유나 기자



완도해경, 어룡도 야산 화재 진압 긴급지원 나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경 완도군 어룡도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완도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채본부

지난해 화재발생 4만건 넘어...사망자 절반은 60대 이상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분석 화재발생 4만114건...사망자는 341명 60대 이상 사망자가 191명...전체 56%

지난 한 해 4만여건의 화재가 발생해 340여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화재는 총 4만114건으로 사망 341명, 부상 2321명 등 총 266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재산피해는 1조 2040억원 규모다.

이는 3만6267건의 화재로 276명이 숨지고 1854명이 다쳤던 2021년 대비 화재 10.6%, 사망자 23.5%, 부상자 25.2%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소방청은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및 여가활동 증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비주거시설이 1만4929건으로 전체의 37.2%를 기록했다. 주거시설은 1만497건(26.1%), 차량 4669건(11.6%) 순이었다.

화재사망자는 주거시설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주거시설 216명(63%), 비주거시설 66명(19.3%), 차량 29명(8.5%) 등이다.

화재사망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70세 이상 105명(30.8%), 60대 86명(25.2%) 등이다. 50대에서도 76명(22.3%)이 숨졌다.

사망 전 상태는 수면 중 또는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연기(화

염)로 피난에 어려움을 겪어가 출구가 잠겨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취약계층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등 피난약자 맞춤형 대응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혼자 사는 노인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화재 패턴과 피해 추이도 달라지고 있다"며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및 시행을 통해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9시 은행 오픈 기다리는 시민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전 9시에 문을 열기로 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에서 시민이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

날개 다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광양 도곶가서 구조

"겨울철 영양 부족으로 날던 중 떨어지기도"

광양의 한 도로에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다친 채로 발견돼 동물보호단체에 넘겨졌다.

30일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시 32분께 광양시 태인동 모정비업소 인근 도곶가에 수리부엉이 1마리가 하늘로 날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날개를 다친 수리부엉이를 포획한 뒤 야생동물협회가 인계했다. 수리부엉이는 40~50cm 크기로 날

개가 변형된 채 움크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영양 섭취가 안된 수리부엉이가 하늘을 날던 중 지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생동물협회가 치료한 뒤 야생으로 방생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빼미과 조류로 분류되는 수리부엉이는 야행성 맹금류로 천연기념물 324호,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



정돼 보호받고 있다.

광양=김현근 기자

월급 1000만원 이상 광주 사립유치원장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장 월급이 1000만원을 넘는 등 사립대 총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A유치원 원장 월급은 1216만원, B원장 1032만원, C원장 1006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또 C원장은 지난 2019년 12월 기준 매월 492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지난해 8월에는 2배가 넘는 1006만원으로 인상됐다. A유치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 직원으로 채용된 조카에게는 근무 연차가 적은 데도 56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B유치원도 남편 642만원, 아들 520만원 등 가족 전체에게 매월 210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 유치원은 친동생을 조리원으로 채용해 289만원을 지급했으며 같은 조건의 조리원 128만원보다 161만원 많았다. D유치원은 지난해 9월 기준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부 사립유치원장의 월급은 공립유치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는 국립대학교 총장 급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며 "사립유치원은 교직원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명시돼 있을 뿐 원장은 빠져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예산이 원장과 일가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주머니로 방치된다면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비 기자